

역사(歷史)에 관한 고찰(考察)

양재현 (梁在賢)¹⁾

광활(廣闊)한 우주속의 한 점에 불과한 지구상에서 오래 전 부터 인류의 역사가 전개되어 오고 있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는 무엇인가 ?”** 라는 자연스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기서는 20세기에 활동했던 두 대표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Arnold J. Toynbee, 1889~1975)와 **에드워드 카** (Edward H. Carr, 1892~1982)의 역사관을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본인의 역사관을 논(論)하겠다.

토인비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 (A Study of History)]** (참고 문헌 <1>)에서 인류의 역사를 문명의 “창조, 성장, 분열, 해체” 단계를 거치는 과정의 역사로 인식하였다. 그는 문명의 성장을 끊임 없이 계속되는 “도전(challenge)”에 성공적으로 “응전(response)”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카(Carr)는 그의 저서 **[역사는 무엇인가 ? (What is History ?)]** (참고문헌 <2>)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역설하며, “역사는 과학이다. 그리고 역사는 진보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6> 51쪽, 61쪽). 또한 그는 “역사가는 특수성에서 보편성을 찾는 학자”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카토의 저서 (참고문헌 <6>)의 서장(序章)을 참고하길 바란다.

본인은 인류의 역사를 (*)의 역사라고 역설(力設)하고자 한다. (*)는 아래의 다섯 가지로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 국가들과의 전쟁

1) 梁在賢 高等研究所 (Yang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루소(1712~1778)는 에세이 [전쟁 및 전쟁 상태론] (참고문헌 <7>)에서 “전쟁은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주권, 사회계약에 대한 공격으로 행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이란 패전국의 헌법을 바꾸는 것이다 (참고문헌 <6> 44-46쪽). 예를 들면, 펠로폰네소스 전쟁 (참고문헌 <4>), 중국 전국시대의 진나라 통일 전쟁, 로마제국 형성과정의 전쟁, 나폴레옹 전쟁, 제2차 세계대전 등이다. 이들 전쟁은 인간의 탐욕 (지배욕, 권력욕, 영토 확장 및 물질에 대한 욕심 등)에 의해 일어났다. 이와 달리 새뮤얼 헌팅턴 (Samuel P. Huntington, 1927~2008)은 그의 저서 (참고문헌 <3>)에서 “미래의 인류의 역사는 국가들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명들 사이의 전쟁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내전과 혁명

내전과 혁명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탄생된다. 성공한 내전은 비록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미국의 남북전쟁(1861~1865)이다. 일본의 보신전쟁(戊辰戰爭, 1868~1869), 하코다테전쟁(箱館戰爭, 1868~1869)전쟁과 세이난 전쟁(西南戰爭, 1877) 등도 성공한 내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교도 혁명(the English Revolution, 1642~1651)과 프랑스 대혁명(the French Revolution, 1789~1799)은 인류 역사상 성공한 혁명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한국전쟁(the Korean War, 1950~1953)은 실패한 내전이다. 중국의 공산당과 국민당과의 내전(國共內戰, 1927~1936, 1945~1949)은 역사가들 사이의 주관에 따라 평가는 다르다.

셋째, 자연과의 싸움

인류가 오래 전부터 자연재해(홍수, 가뭄, 지진, 전염병, 기후의 변화 등)와 싸워나가며 극복해 나가는 과정의 역사이다.

넷째,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집적(Dataism)과의 전쟁

이것은 지금부터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류의 역사 과정이다. 미래의 역사이다 (참고문헌 <5>).

다섯째, 인류 자신과의 싸움

오래 전부터 내려 온 본질적인 싸움의 역사임과 동시에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싸움의 역사이다. 도덕, 윤리, 양심, 자유, 이성(reason), 종교 등과 연관된 인류 자신과의 싸움이다.

대체로 역사가들의 주장은 믿을 것은 못된다. 그들의 주장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 보다는 주관적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산당과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는 극명하게 다르다.

중국과 대한민국에서의 역사적인 대사건은 각각 1912년과 1948년에 일어났다. 중국의 경우는 기원전 221년부터 1912년까지의 2132년 기간의 대부분 절대 권력을 지닌 황제들에 의해 통치되었다. 기원전 221년에 황제로 등극한 진시황으로 시작하여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의(선통제)가 1912년 퇴위하면서, 황제 제도가 공화제로 바뀌고, 군주제가 민주제로 대체된 것은 중국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 획기적이고 엄청난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2000 여 년 동안 왕조국가와 식민지 국가를 청산하고 1948년 자발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하였다는 것은 세계 역사상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다. 일본은 1945년에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게 완전히 항복하면서 미국의 강요에 의해 천황 중심의 제국주의 국가에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바뀐 것도 큰 역사적인 사건이다.

[참고문헌]

- <1> Arnold Toynbee, A Study of History (12 volumes), Oxford University Press (1934-1961).
- <2> Edward Carr, What is History ?, University of Cambridge & Penguin Books (1961).
- <3> Samuel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Remaking of World Order, Simon & Schuster (1996).
- <4> Graham Allison,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7).
- <5> Yuval Noah Harari, 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Spiegel & Grau, Jonathan Cape (2018).
- <6> 가토 요코 (윤현영, 이승철 옮김),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청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까지), 서해문집 (2018).
- <7> Jean-Jacques Rousseau, Essays on The State of War & A Lasting Peace through the Federation of Europe (1756).

양재현 고등연구소

우편번호 : 07997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293

현대41타워 1905호

email : jhyang8357@gmail.com